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22)

유기공야(遺其功也)

그의 공로를 내버렸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애국자, 충신, 매국노, 성인(聖人), 친일파 같은 단어를 가져다 평가한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이 한 마디의 단어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이 한 마디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모자(帽子)가 된다. 그리고 그 역할한 모자를 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음해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하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만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아무런 훈련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모자를 씌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그 가운데 쉽게 갖다 씌우는 모자가 친일파(親日派)라는 모자를 씌우는 사람이다. 어디까지 일본과 가까워야 친일파라는 모자를 씌울 수 있는지 분명한 정의(定義)도 없이 말이다. 그저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면 친일파라고 하면 되는 것 같다. 너무 무지하다고나 해야 할까?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는 일본과 이웃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난세기에는 35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역사가 있기에 비록 지금 그 배인 70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친척 누구인가는 일본 군대에 가야했고, 그게 아니면 징용이라도 가야했다. 또 그 시절에 일본에 세금 내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간은 제국주의 일본을 도왔다고 할 수 있으니 친일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혹 우리친척이 일본에 세금을 내어서 일시적으로 제국주의를 간접적으로 도왔다고 하여도, 해방이후 그분들이 바로 한국을 부흥시키고 우리를 길러 이만큼이라고 여전한 국가를 건설하였는데, 이를 못 본체 일본에 세금 낸 것만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니 앞뒤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친일파로 몰아서 찬반이 엇갈려 사회를 분열시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과거의 허물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까지라도 포용하

여 내일을 위한 힘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태산이 높은 것은 모래알 하나라도 버리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달에 ‘6·25의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1백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는데, 일부 인사들이 ‘친일파’로 못 박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들이 한 말을 언론을 통하여 전해 들으면서 역사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에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용감한 만행(?)’을 저지르는지 아이가 없었다.

당나라 태종시절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당 태종은 지금의 실크로드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 고창(高昌)을 정복하라고 장군 후군집(侯君集)에게 명령을 내렸고, 후군집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고창을 정복하고 드디어 많은 포로를 잡아다가 관덕전(觀德殿)에 바쳤다. 태종은 얼마나 기뻐던지 한껏 술을 마시도록 하는 예(禮)를 베풀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까지도 사흘간 대포(大酺)하도록 하였다. 대포란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술을 먹어도 좋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에서부터 황제까지 모두 고창을 정복한 일을 기뻐한 것이다.

더욱이 태종은 고창에 있던 악공(樂工)을 데려다가 고창의 음악을 하나의 장르로 받아들여서 그동안 9부악이었던 음악에 하나를 더 보태어 10부악으로 늘리기 까지 했으니 당시로서는 동아시아 음악을 집대성하기까지 하는 공로를 후군집이 세운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후군집이 고창을 격파하면서 그곳에 있는 진기한 보배를 빼앗았다. 또 장사들도 그곳에서 도둑질을 하였는데 이를 금지할 수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안 유사(有司)가 후군집을 탄핵하였고 이 고발을 받은 태종은 후군집을 감옥에 넣게 하였다. 후군집이 비록 공로를 세웠지만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니 감옥에 넣는 것을 반드시 잘 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본 중서시랑인 잠문분(岑文本)이라는 사람이 태종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고창이 혼미하여 폐하께서 후군집 등에게 이를 토벌하라고 명령하였고 싸워서 이겼는데, 열흘이 넘지 않아서 나란히 감옥에 넣어 재판에 붙였습니다. 비록 후군집 등이 스스로 범망에 걸린 것이지만, 아마도 해내에

있는 사람들이 폐하는 오직 그의 허물만 기억하고 그의 공로는 내버린다고 생각할까 걱정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하여 승리한 공로는 저버리고 허물만 드러내는 치우침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말하기를 ‘장수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내보내면 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만약에 적을 이길 수만 있다면 비록 탐욕스러워도 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었다면 비록 청렴하여도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도 하였다.

즉 승리하고 부패한 사람과 청렴하고 실패한 사람을 두고 공과를 따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잠문분은 얼마간 부패하더라도 승리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한(漢)의 이광리(李廣利)와 진탕(陳湯) 그리고 진(晉)의 왕준(王濬)과 수(隋)의 한금호(韓擒虎)는 모두 죄를 짓고 견책을 받았으나, 인주(人主)가 그들이 공로를 세운 것이 있어서 모두 작위와 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거론하였다. 이 말을 들은 당태종은 후군집을 황금히 풀어 주었다.

다시 돌아가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만큼 우리사회는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보는 성숙한 평가를 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묶어서 책을 냈고 그 가운데는 백선엽 장군뿐 만 아니고 이광수(李光秀) 같은 우리가 그동안 추앙했던 분들도 끼어 있었다. 편향된 시간만을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공로는 심지 않고 친일행각만 골라서 실었으니 역사자료치고는 어처구니없는 자료이다. 잠문분의 말대로라면 허물만 기억하고 공로는 내버린 처사이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류가 성인으로 평가하는 분에게서 그의 업적을 빼버리고 허물만 꼬집어 낸다면 어떨까?

다시 잠문분의 말을 곱씹어 보자. 그는 당태종에게 후군집이 당나라에 세운 공로는 온전히 받아 챙기고 그의 잘 못을 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비판이다. 이는 파렴치한 것이다. 마치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돼놈이 챙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당태종은 이 말을 듣자마자 후군집을 석방했다. 잠문분의 말을 듣자마자 스스로의 잘 못을 인정하고 공과를 균형 있게 본 것이다.

백선엽장군이 북한의 침략을 최전선에서 막아낸 공로가 후군집이 고창을 정복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당나라 입장에서 고창이야 정복을 안 해도 나라가 망할 처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백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니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백장군의 공로를 후군집에 비교할 바가 아닌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안다. 이러하네 그의 공로를 한 마디 거론하지도 않고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파렴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한자 권(權)의 뜻풀이

권(權)은 저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세나, 권도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내용의 시비와 사물의 경중을 헤아려, 정도에 맞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권(權)이라는 글자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대법원에 저울로 물건을 다는 모습을 크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법원이 저울로 물건을 달듯이 치우침 없이 판단하는 곳이란 뜻을 나타낸 듯합니다.

이 권(權) 자는 나무 목(木)에 황새 권(鵠·권의 오른편 부분)이 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나무 목(木)은 저울대이고 여기엔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눈금을 황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모양이 권(權)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대를 만든 나무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많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저울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경중을 가늠하는 역할을 하는 저울대니까 말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황화목(黃花

木)입니다. 매우 귀한 나무입니다. 노란 꽃이 탐스럽게 피고 키가 5미터가 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곧고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하기 어려운 나무로 저울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새 권(鵠)도 그렇습니다. 부리 위의 장식이 卐이고 두 개의 다는 눈은, 추(雉)는 새를 뜻하는 형상입니다. 이 셋이 모여 황새 권(鵠)이 된 것입니다. 황새는 예로부터 인간에게 신령함을 전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새의 습성이 무리 지어 골짜기나 마을 부근의 숲에 깃들이곤 하는데, 그곳은 반드시 상서롭다고 합니다. 아마 저울 눈금을 잘 살피는 새는 이런 새라야 한다고 판단했던 듯합니다. 어쨌든 권(權)의 글자됨이 이렇습니다.

이를 보면 권(權)에는 어떤 일을 저울에 달듯이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의미가 큼니다. 일이 공정하려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중도(中道)라고 합니다. 다만 중도는 항상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시처중(隨時處中)이 그런 뜻입니다. 저울에 다는 물건의 무게가 한결같지 않듯이 말입니다. 장소나 시간에 따라 처리되는 일의 잣대도 달라야 합니다. 경우마다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권도(權度)입니다.

권혁환 울산종친회 사무처장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 여덟 번째 모임 가져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이 여덟 번째 모임을 가졌다.

7월 6일 저녁 7시 갑자기 내리는 강한 소나비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당북동 제비원로 ‘부창한정식’식당에서 대중회 고문, 파종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권계동, 권오수 대중회 두 고문을 비롯하여 권인택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오의 대중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종공파종회장, 권기원 파종회장협의회 사무국장 등 11명이고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은 개인 불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모임에서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종친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을 다가오는 정기총회 때 안동종친회장으로 연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중회에서 권경달 전 대중원 총재를 명예 회장으로, 권계동, 권오수, 권중준씨 등 3명을 대

중회 고문으로,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을 당연직 수석부회장으로, 권주연, 권오중, 권영택씨 등 3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안동의 위상을 조금 높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정달 전 총재가 대중원을 맡았을 때는 부회장 등 16명이 안동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밖에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 오던 ‘2020년도 안동종친회 정기총회’를 오는 7월 24일 안동종친회관에서 고문, 원로, 부회장, 읍·면 지회장, 청년회, 부녀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자리를 마련한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안동지방에는 가뭄이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저녁 많은 비가 내리니 무척 반갑다”고 말하고 “소찬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녁식사는 나물국을 곁들여 한정식을 먹으면서 정답을 나누다 헤어졌다. 다음 아홉 번째 모임은 오는 8월 11일 점심시간 때 권중근 시종공파종회장이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북도청이 있는 예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대중회 임원 선임 명단

부회장(64명)		이사(94명)		종무위원(60명)	
권경식(전 도의원)	권오강(주)동북아체인대표)	권갑수(부산)	권순식(대구)	권임호(부산)	권갑현(북아)
권경웅(예래위원)	권오기(㈜신성대표)	권경호(대구)	권순용(구리)	권재익(서울송파구)	권건중(시중)
권광택(도의원)	권오돈(추밀공파회장)	권광훈(청주)	권순창(안동)	권재호(산청)	권경일(추밀)
권기갑(면집위원)	권오서(전 부정공파회장)	권구율(합천)	권영갑(수원)	권정원(봉화)	권경호(호장)
권기식(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권오성(㈜비바스스포츠회장)	권구현(합천)	권영규(서울동작구)	권정택(상주)	권기수(별장)
권기영(신길역 부동산대표)	권오신(전 포항MBC사장)	권기성(서울영등포구)	권영두(서울종로구)	권창구(원주)	권기순(충윤)
권기홍(군기감공파 회장)	권오실(전 교육장)	권대균(안동)	권영록(합천)	권천문(서울중구)	권기욱(별장)
권대능(안동청장년회장)	권오윤(별장공파 서울회장)	권동현(서울강동구)	권영복(서울용산구)	권준규(용인)	권기택(부호장)
권대봉(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권오을(전 국회의원)	권두현(수원)	권영봉(김해)	권태성(합천)	권기호(북아)
권무택(대영고등학교 이사장)	권오형(삼덕회계법인)	권명달(울산)	권영석(합천)	권태왕(서울노원구)	권기호(정조)
권병근(성균관유도회합천지회장)	권용일(㈜세화금융ENG대표)	권민호(산청)	권영순(용인)	권태훈(시흥)	권기홍(경기감)
권부성(세계무술총재)	권용준(요양병원 이사장)	권병준(서울은평구)	권영순(영주)	권택동(경주)	권대경(북아)
권선택(전 대전시장)	권육상(우성스텐스틸㈜회장)	권병국(산청)	권영술(서울서초구)	권택문(예천)	권대인(북아)
권성동(국회의원)	권은희(국회의원)	권병기(인천)	권영식(인천)	권필원(서울금천구)	권동원(추밀)
권세도(전 경찰서장)	권인택(전 파종협의회회장)	권병남(횡성)	권영식(산청)	권해호(부산)	권동현(별장)
권수용(세계평화연합 이집트회장)	권정하(익산중증부회장)	권병일(서울동대문구)	권영위(부산)	권혁구(음성)	권무택(검교)
권순협(안동 농협조합장)	권정일(태광상사 대표)	권병환(서울강북구)	권영하(영천)	권혁도(예천)	권박원(추밀)
권승일(일본관서종친회장)	권정호(변호사, 서울정장장년회장)	권병후(수원)	권영훈(안동)	권혁만(부산)	권병도(호장)
권승호(전 서울청장년회장)	권창용(전 문화원장, 예천종친회장)	권보근(김포)	권오갑(안동)	권혁목(강릉)	권병선(추밀)
권승환(한국요양신문보설위원)	권철승(국회의원)	권보상(의령)	권오국(안동)	권혁신(김포)	권순걸(종파)
권영건(현대정미소 사장)	권태균(화산부원군종회장)	권봉환(대구)	권오민(김포)	권혁열(분당)	권순욱(종파)
권영문(변호사)	권태석(뉴브호텔 회장)	권사현(합천)	권오영(안동)	권혁조(충주)	권순채(경기감)
권영복(산청지역종친회장)	권태철(kTC테크놀로지 사장)	권상호(안동)	권오정(예천)	권혁중(안양시)	권양호(북아)
권영수(주)LG유플러스 회장)	권태형(마창진 지역종친회장)	권석주(광주)	권오준(영천)	권혁재(평택)	권영건(부호장)
권영식(전 전국청장년회장)	권혁기(삼성농장대표)	권선출(성남)	권오준(강남구)	권혁철(음성)	권영도(부정)
권영식(영등포의회 부의장)	권혁운(아이에스동서㈜회장)	권성갑(전주)	권오준(서울중구)	권혁태(영주)	권영동(동정)
권영렬(화천기공(주)회장)	권혁찬(보협설계사)	권성규(합천)	권오철(동대문구)	권혁필(서울영등포구)	권영택(경기감)
권영옥(전 농협조합장)	권혁춘(화봉회 회장)	권성덕(영덕)	권오형(서울은평구)	권혁환(울산)	권영식(북아)
권영진(대구시장)	권혁홍(대안 그룹회장)	권성일(대구)	권홍근(대전)	권혁진(부호장)	권영역(추밀)
권영훈(법무법인 현빈대표)	권호량(전 노조대표)	권송웅(대전)	권우상(청원)	권홍태(서울종로구)	권영주(검교)
권영훈(㈜대산금융대표)	권홍사(반도건설㈜회장)	권순관(대구)	권이원(대전)	권홍식(의성)	
권오갑(전 과기부차관)	권희철(전 이사)	권순규(원주)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